

# 광양시-포스코, 청년 취업 확대 '맞손'

### 취업 아카데미 운영 협약식 고교 졸업자 등 40여명 공개경쟁에 필요한 교육 지역인재 등용문 넓히기로

광양지역 청년의 포스코 그룹 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이 이뤄졌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상황실에서 시와 광양제철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업무 협약식' (사진)을 가졌다.

광양시-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그동안 지역의 인재를 대기업이 많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기

위해서 추진됐다.

교육 참여 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광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40여 명이 6개월간 교육받는다.

주로 포스코 입사에 필요한 ▲직무기초 지식 ▲인성교육 ▲회사 상식 ▲현장 교육 ▲모의 면접 등으로 포스코 그룹 공개 경쟁 지원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추진된다.

광양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주관한다. 취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계획 수립, 사업추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광양제철소는 교육계획 수립시 취업 지원에 필요한 과정을 광양시와 협력하고 교육과정 중 인성·상식·현장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에 필요한

모의 면접을 광양시와 공동 추진하며 취업 교육에 필요한 현장기기, 실습 기자재 등의 사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포스코 그룹에 취업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공개 경쟁에 참여해 입사하게 된다.

앞서 광양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해 매년 30여명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 연간 250여명 이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시민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업으로 포스코의 협력 끝에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대기업 등용문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섬진강 서식지 확대 위해 재첩 8t 살포



광양시가 하천 생태계 변화로 축소되고 있는 섬진강재첩의 서식지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섬진강 상류 수역에 재첩을 살포했다.

지역주민, 재첩생산사업인, 전남동부수협, 공무원 등 40여명은 최근 섬진강 하류에서 채취한 재첩 약 8t을 다량면 섬진마을~관동마을에 살포했다. <사진>

살포한 재첩은 살포수역에서 약 1개월간 적응기를 거쳐 정착하며 이듬해 5월부터 성장과 산란을 반복하면서 모래톱 등에 재첩 종패와 성패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80t의 재첩을 지속적으로 살포,

생산량 증가와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다.

박성이 광양시 해양수산팀장은 "섬진강재첩의 서식지 확대와 생산을 위해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섬진강재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지역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 11월 '섬진강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7호로 지정된 이후 하동군과 공동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섬진강재첩의 브랜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성황리 마무리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 비즈니스 및 공공조달 플랫폼 창출 등을 위해 열린 '2019 광양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드론산업대전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또 전시회,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산업분야와 드론 레이싱·축구 경진대회, 드론뉴스, 드론 풍선터트리 기 체험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드론산업의 문(門)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조달청 등 60개 수요처와 29개 공급업체가 참여하고 학생, 시민 등 관람객 1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이번 드론산업대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드론 수요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실증시연회와 전시회를 통해 총 96건의 구매상담을 하는 등 공급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수요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드론실기시험장과 시범공역 유치에 이은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전국 최초의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특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드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역대 처음으로 드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드론 구매와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알찬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을 해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광양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실증시연회가 열렸다. <광양시 제공>

준 광양시에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드론 실증시연회를 참관한 한 시민은 "드론이 연막소독, 인명구조나 시설점검에 활용되는 것을 직접 보니 막연하기만 했던 드론산업이 쉽게 이해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산업대전을 계기로 드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작년부터 산업부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시설점검 분과에 참여해 활동해 오고 있는 만큼 향후 시설점검 빅데이터를 수집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정하는 데 기여해 산업시설 안전점검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장애인콜택시 요금, 버스 요금 수준 인하

광양시는 2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이 버스요금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 인하로 기본 2km 700원은 500원으로 추가 400m 당 100원은 1k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되었던 시간요금은 폐지된다.

기존의 심야·시외운행에 적용됐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km당 1,000원, 1km당 200원 추가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절반 수준에서 지역 내는 시내 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금 인하를 결정했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구영 광양시 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인하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반탐사 신기술 보유업체와 협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7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지반탐사 신기술인 차량탐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보유 업체와 신기술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 급증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해 광양항 임항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GPR로 도로를 스캔해 지반탐사 결과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존 관망지도

정보 갱신,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 등 광양항 임항도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GPR 신기술 활용 협약으로 임항도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반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전성과 관리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소중함** 중한

정치후원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맑은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밀고 나가면 길이 생기고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 이하 10만원 초과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